

마음 열기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시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고린도후서 4장 6-10절,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비취지고 있습니다(6-9절).

하나님께서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습니다(6절a).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며 빛 그 자체가 되시고, 그렇기에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6절b). 이 빛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죄로부터 오고,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빛은 혼돈을 질서로 만들고,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며,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 치유합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비취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보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합니다(7절a). 여기서 보배는 ‘복음’을,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언제든지 더러워지고, 부서져서 내 속에 담긴 복음을 쉽게 쏟아버리고 빼앗기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보배를 지킬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보배로운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7절b)**.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8-9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복음의 빛’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시 소성할 기회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가장 강한 무기인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임하면 두려울 것이 없으며, 마침내 어둠 속에 있는 자들까지 내 안의 빛을 보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담는 복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 복음마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생명의 빛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10절a).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진다 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짚어지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반드시 수고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복음의 빛을 품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10절b).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16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요, 장차 이를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합니다(17-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넘어지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복음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우리는 쉽게 깨지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조차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의 복음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과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두운 세상에 매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나 자신이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2. 지금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나 염려는 무엇인가요?
3.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세상의 어두움과 두려운 환경 앞에서 낙심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하나님의 빛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깊고 하나된 공동체를 향한 몸부림”

공동체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깊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요 17:21).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 흔히 드는 생각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역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을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의 거리를 두곤 합니다. 흔히 예시로는, 첫 번째로 “나만의 경계선”을 두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만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생각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방식대로 삶을 가꾸어 갈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인과 깊이 얽히는 과정에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염려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관한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동기가 ‘스스로를 가치가 없거나 불편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 이거나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온전히 용납받지 못할까 봐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내 방식과 기준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관계의 거리’라는 ‘내 힘과 지식’으로 나를 지키려 했던 태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용서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공동체로 살아갈 능력을 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혹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향해 먼저 움직이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또다시 실패와 마주하겠지만, 그때마다 [회개 → 믿음 → 예배 → 사랑]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부딪히고 실패하면서도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며,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돕는 곳이 바로 복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5월 31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6-10절

